

“폭우 2차 피해 예방 예찰 강화”

우범기 전주시장, 간부회의서 피해 상황 청취·시민 불편 사항 점검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주부터 쏟아진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지반 약화 등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7일 전주시 실·국장과 덕진·완산구청장 등이 참석한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서별 폭우 피해 상황을 청취한 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며칠간 이어진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 가벼운 충격에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면서 “도로와 하천, 등산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주의 깊게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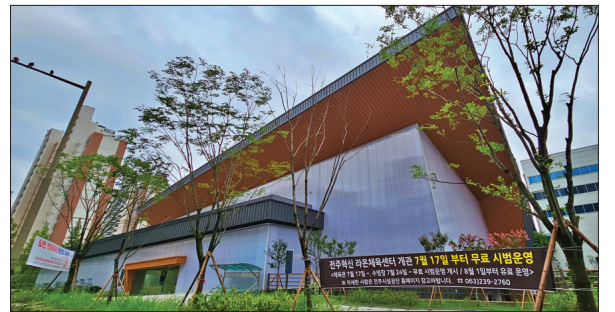
지난주부터 쏟아진 폭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일일이 점검하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호성동 붕괴현장을 찾아 점검에 나서고 있다.

펴서 시민 안전을 챙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물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도심 속 쓰레기와 하천 변 부유물, 차량 통행을 위협하는 포트홀 등 문제들이 이어진다”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서 선제적으로 대응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시장은 재해가 끝나는 즉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뿐 아니라 농경지, 주택침수 등 시민 재산 피해 파악 및 조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우 시장은 “폭우 대응에만 집중하다가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며 “당장 국가 예산 확보뿐 아니라 세계스카우트 캠프비 등 산적한 현안도 병행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욱기 기자



전주혁신 라온 체육센터 전경

‘라온 체육센터’ 내달 정식 개관

전주 서북권 생활체육 거점... 31일까지 무료 시범운영

전주 서북권 생활체육의 거점인 ‘도내기생 국민체육센터’의 개관에 이어 혁신도시를 비롯한 전주 서북권 지역의 생활체육 거점이 될 ‘라온 체육센터’도 정식 개관에 앞서 무료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전주시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라온 체육센터를 7월 31일까지 무료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다목적체육관은 이날부터, 수영장은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다목적체육관의 경우 요일별로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이 다르다. 월, 수, 금, 일요일은 배드민턴, 화, 목, 토요일은 예약제로 배구나 농구 등의 종목 전용으로 운영된다. 정식 운영이 시작되는 8월 1일부터 성인을 기준으로 체육관은 1일/1회 2000원, 수영장은 1일/1회

3000원의 이용요금이 적용된다. 라온 체육센터는 전주시 덕진구 중동 852에 자리하고 있으며, 연면적 3909㎡에 지상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지하 1층에 25m 길이 6개 레인의 수영장과 1개의 유아풀이, 지상 1층에 배드민턴 4면, 농구 1면, 배구 1면의 코트가 조성돼 있다. 지상 2층에 있는 다목적 공간은 현재 △실내 서핑장 △스크린 테니스 △스크린 골프 등 3가지 안이 고려되고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도내기생 국민체육센터에 이어 ‘라온 체육센터’도 문을 열면서 생활체육의 저변이 한껏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주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대시민 보고회’ 20일 개최

뉴질랜드 연수·성과 공유·국의 출장 새 패러다임 모색

전주시의회가 공무국외출장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과 함께 시정 적용 방안을 찾는 ‘대시민 보고회’를 20일 전주시회혁신센터 1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월 뉴질랜드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연수단(단장 송영진 의원)이 시민을 초청해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뉴질랜드 출장의 성과를 되짚어보는 결과 발표와 정책 제언 발표, 공무국외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등이

보고회의 주된 내용이다. 신기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초빙을 통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특강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제12대 의회 들어 연수 목적과 성과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회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송영진 연수단장은 “국의출장의 사전 준비부터 결과까지의 과정 일체를 공개·발표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출장 성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실용적인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추진

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르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시는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들을 위해 24호 규모의 청년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전주시 에너지센터에서 사회적경제주체 및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전주형 청년임대주택 신축매입약정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하는 규모의 전용면적 설계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주형 청년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회적경제주체와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기획·설계·시공을 맡아 진행하고, 준

공 후 시에서 매입하게 된다. 이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가 청년임대주택의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임대료는 시중 가격의 50% 이하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24년 하반기 입주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4일 전주시 에너지센터에서 사회적경제주체 및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전주형 청년임대주택 신축매입약정 사업설명회’를 열고, 청년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신축매입약정방식의 사업절차 등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청년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7개소 82가구의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안심귀갓길 조도 개선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오는 9월까지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귀갓길 조도 개선을 실시한다.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관내 안심귀갓길(15개소 4.5km)에 보안등 164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력 소모량이 높고 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메탈·나트륨 보안등을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고, GPS 일방향 점멸기를 IOT양방향 점멸기로 교체를 진행한다.

덕진구는 이번 안심귀갓길 조도 개선사업을 통해 야간 보행환경 개선으로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전주평생학습한마당 홍보 체험 부스운영 참여단체 모집

대한민국 대표 평생학습도시인 전주시가 지역 평생학습 기관·단체들과 함께 평생학습축제를 준비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에서 홍보 체험 부스를 운영할 평생학습 기관·단체 등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은 매년 2만 명 이상의 전주시민들이 참여해 함께 즐기는 전주시의 평생학습 축제로, 해마다 평균 약 130여 개의 평생학습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시는 올해 축제에서도 전주지역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하던 학습자와 강사, 기관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들이 평생학습 입문 체험과 각종 전시·공연 등을 즐길 수

있도록 100여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홍보 체험 부스 90개소는 지역 평생학습 기관과 단체의 참여로 이뤄지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입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관·단체를 홍보하기 원하는 운영주체는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단체는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 또는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e.jonju.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5269)로 문의하면 된다.

권인숙 전주시 평생학습관장은 “이번 전주평생학습한마당을 통해 시민들이 다양한 평생학습 기관과 단체에 대해 알고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